

국·외·소·식

🔄 FDA, 비만 견공들 위한 다이어트 약품 승인

미국의 비만견들은 앞으로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만 문제를 가진 애완견들을 위한 최초의 의약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시카고 트리뷴 등 미국 신문들이 1월 5일 보도했다.

슬렌트롤이라는 이 약품은 화이자 사(社)가 개발한 것으로 FDA의 스티븐 선드로프 수의학센터장은 “동물 치료에 있어 반가운 소식이다. 애완견 비만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반가워했다.

애완견의 경우 이상적인 체중보다 20% 이상 더 나갈 경우 비만으로 간주되며 비만견은 현재 미국 내 6천200만마리에 달하는 애완견 가운데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FDA에 따르면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슬렌트롤은 액체 형태로, 비만견의 체중 감소를 위해 식욕을 감퇴시키고 지방흡수를 줄여주지만 설사, 구토, 무기력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FDA는 슬렌트롤이 개들만을 위한 약품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섭취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상세히 나열하고 개주인들이 이를 자신들의 다이어트용으로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FDA는 애완견들의 비만 치료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식품 섭취와 운동이 필수적이라며 슬렌트롤은 애완견 비만 해결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치료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슬렌트롤은 복용을 중단하면 하루나 이틀 뒤부터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카고)이경원 통신원(kwchrilee@yna.co.kr)

2007년 1월 6일

🔄 메이, 애완견 초청해 라이브 무대 꾸며

신인 가수 메이가 일본에서 첫 앨범 ‘a Little Happiness’를 발표한 기념으로 애완견과 애견가 팬들이 함께 하는 라이브 무대를 개최했다.

일본 오리콘 뉴스는 “1월 30일 한국 출신 가수 메이가 첫 앨범 ‘a Little Happiness’ 발표를 기념해 ‘애견가 응원’이라는 테마로 애견가 200명과 애완견이 함께 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도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이번 이벤트에서는 강아지의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히로세 료코, 도다 에리카, 아리무라 미키가 프로모션 비디오의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안녕 햇살’, ‘찬바람의 순정’, ‘사라이의 바람’ 등 ‘MAY be Happy’의 완결편 프로모션 비디오가 모두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메이는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하는 라이브 무대라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다”며 “좀더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해 폭넓은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오리콘은 “일본 음향연구소가 음성을 분석한 결과 ‘메이는 보기 드문 목소리를 지녔으며 고음 속에도

사람을 안정시키는 음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는 사람뿐 아니라 개에게도 해당됐으며 공연 내내 조용하게 듣고 있던 애완견들의 태도가 이를 증명한다"고 전했다.

메이는 오는 4월부터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서 솔로 라이브 '메이 퍼스트라이브 투어 2007-a Little Happiness Tour'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라디오 고정 코너 진행 및 라이브 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일본 도쿄>서현주 통신원(sutekinast@yna.co.kr)

2007년 2월 5일

☞ "美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은 '간호사'"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은 간호사인 반면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자동차 세일즈맨인 것으로 밝혀졌다.

USA투데이와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간호사의 윤리를 "매우 높다" 또는 "높다"로 평가했다.

자동차 판매원에 대한 같은 평가는 7%에 불과했다.

약사가 73%로 간호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수의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가 '높다' 또는 '매우 높다'로 평가했다.

성직자와 대학 강사는 58%로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경찰은 간신히 54%를 얻었다.

광고업자는 11%로 자동차 판매원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를 차지했고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12%를 얻는데 그쳤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8~10일 전국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뉴욕 UPI=연합뉴스>

2007년 1월 9일

국·내·소·식

☞ 야생동물 '로드킬' 5년간 3천241건

'로드킬(Road Kill)'을 예방하기 위해선 수로 파이프 등 생태통로보다 도로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태영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원은 1월 31일 오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야생동물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세미나'에서 "생태통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킬'은 인공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려는 동물들이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1년~2005년 사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모두 3천241건이다.

최 연구원은 "사슴의 경우 일반적으로 60~97% 정도 로드킬이 감소되는 등 펜스 설치가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며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조성 중인 생태통로는 조성비용이 1곳당 10억~20억원으로 높으나 효과는 통로 설치지점과 주변 1km에 불과한 반면 펜스는 1m당 6만~21만원으

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국의 고속도로가 3천km에 달해 이 중 1/3에 가장 단가가 낮은 펜스를 도로 양편에 설치할 경우에도 1천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 ▲ 펜스보다 더 저렴하고 효과가 뛰어난 대책의 개발
- ▲ 펜스 설치 효과가 큰 최적·최단구간 선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통로는 도로에 의해 동물 이동이 단절됐음이 확인된 구간이나 생태계 네트워크 차원에서 향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구간 등에 한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용 건설교통부 사무관은 “도로의 계획·시공 단계부터 친환경 도로를 추진하고 환경 전문가가 참여, 환경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은진 기자(engine@yna.co.kr)

2007년 1월 31일



로드킬당한청설모

🔄 인천항 애완견 수입 거의 사라져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연간 2천여마리 넘게 반입되던 애완견이 자취를 감췄다.

1월 2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된 애완견은 불과 15마리.

2005년만 해도 2천174마리가 수입됐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수입이 끊긴 셈이다.

애완견 수입은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인천세관의 휴대품 단속 강화 조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세관이 농산물과 한약재 등 여행자 휴대품 면세 허용량을 하향 조정하자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애완견에 관심을 가진 것.

보따리상들은 중국에서 주로 페키니즈 중 애완견을 1마리당 20만원 가량에 사서 국내에서 30만원에 내다 팔며 ‘짹짹’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종이상자에 구멍만 몇 개 뚫어 만든 간이 ‘개장’ 안에 20여시간 가량 애완견을 가둬 놓다 보니 배설물로 인한 악취는 물론 개들이 동시에 짖어대는 소음으로 국제여객선과 인천항 여객터미널 입국장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결국 2004년 말 국제여객선사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애완견은 휴대품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객선 내 반입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후부터 여객선을 통한 애완견 반입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컨테이너를 통해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정상 수출되는 애완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항 애완견 수출 현황을 보면 2004년 55마리, 2005년 1천543마리에 이어 지난해에는 2천685마리

에 달했다. 지난해 인천항 수출분은 전국 애완견 수출 2천702마리의 99.4%에 달한다.

수출되는 애완견은 대부분 생후 1년 전후의 강아지로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뮤트, 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애완견 시장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애완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애완견 수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종구 기자(inyon@yna.co.kr)

2007년 1월 24일

☞ “겨울철 굶주린 야생동물을 위해”

19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상류 민간인출입통제선내 최전방지역에서 주민들이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위해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해용 기자(dmz@yna.co.kr)

2007년 1월 19일



야생동물먹이주기

☞ 충남도 천안 시 방역 '총력'

충남도는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1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지사 주재로 도와 16개 시·군 축산과장, 농협 축산팀장, 가축위생연구소 지소장, 양계조합장, 수의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가축 및 차량 이동제한을 위해 아산 발병 이후 천안과 아산, 연기 등 20곳에서 운영하던 통제초소를 30개로 늘려 운영하는 한편 500m 오염지역에서 농장 종사자의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분뇨 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풍세천과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곡교천과 풍세천, 미호천 등 철새도래지에서 분변검사 1천건, 혈청검사 6천500건을 실시하는 한편 천변 10km 이내 가금류 농장을 파악, 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혈청·분변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천안 발생지역과 지난해 12월 아산 발생농장 모두 2003~2004년 겨울 AI가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에 주목, 예전에 발병한 적이 있는 지역을 집중 예찰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아산 발병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21일 전북 익산에서 최초 발병하기 일주일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다른 생계안정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 농가는 산란계 사육 농장 10곳 총 27만3천마리로, 추가 살처분 결정은 이날 오후 2시 농림부 중앙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나온다.

지난해 11~12월 전북과 충남에서 4차례 발생한 AI로 충남도내 41농가에서 17억2천여만원의 살처분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0%가 가지급됐고, 피해 규모가 큰 12개 농가에게 생계안정지원 자금으로 9천7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지사는 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있는 터라 피해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설 전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 촉진 활동으로 농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cherora@yna.co.kr)

2007년 1월 21일

👉 “애견 의료사고 위자료 개값의 세배 주라”

법원 “개 값 20만원에 위자료 70만원 동물병원이 배상”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애견이 죽은데 대해 병원측은 개 주인에게 개 값의 세 배가 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6단독 유재현 판사는 1월 17일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애완견이 폐사했으니 1천200만원을 물어내라’며 개 주인 하모(39)씨가 동물병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개 값 2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완동물이 사고로 죽은 경우 비록 피해 물건이 동물일지라도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고 경험칙상 피해자의 애착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애견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키운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애견을 키운 기간과 죽게 된 경위를 조합해 결정했다”며 당시 애견의 시세를 감안해 소유물에 대한 배상금으로 20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하씨는 2001년 2월 당시 18개월 된 ‘슈나우저’ 애견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모 동물병원에 맡겼으나 증세가 악화해 가까운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하씨는 다른 병원에서 애완견이 급성신부전증과 요독증성 폐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진 뒤 애견을 성남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두 차례나 이송해 치료토록 했지만 결국 숨지자 김씨의 병원이 애완견의 증세를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장재은 기자(jangje@yna.co.kr)

2007년 1월 17일



전 기사 <저작권재(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